<h1>나 혼자만 레벨업-72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u71016ab499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2화</p>  
<p>'시작해 볼까?'</p>  
<p>진우의 등 뒤로 그림자 병사들이 소환됐다.</p>  
<p>일반 병사들은 물론 마법병, 마수병, 그리고 두 명의 기사들까지.</p>  
<p>그들의 선두에 진우가 있었다.</p>  
<p>두 명의 기사들이 걸어 나와 진우의 좌우에 자리를 잡았다.</p>  
<p>오른쪽의 이그리트, 왼쪽의 아이언을 한 번씩 곁눈질한 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'든든하네.'</p>  
<p>비록 본인의 스킬이라고는 해도, 옆을 지키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'그렇다고 전면전을 하기에는 좀...'</p>  
<p>위험해 보였다.</p>  
<p>다른 게 아니라 볼칸이 쥐고 있는 나무 재질의 몽둥이 때문이었다.</p>  
<p>'저만한 크기의 나무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, 참.'</p>  
<p>볼칸의 덩치와 몽둥이의 크기로 짐작하건데, 일격에 병사들을 전부 쓸어버릴 수 있을 듯했다.</p>  
<p>'쓸리는 거까지는 괜찮다.'</p>  
<p>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쓰러진 병사들을 재생시키는 데 드는 마나였다.</p>  
<p>저렇게 무식한 무기에 갈려 나가는 병사들을 되살리다 보면 금세 마나가 동날 게 뻔했다.</p>  
<p>그렇다면 방법은 하나.</p>  
<p>'저 덩어리는 내가 맡는다.'</p>  
<p>볼칸의 졸개들은 병사들에게 맡기고 그사이 혼자서 볼칸을 처치하는 것.</p>  
<p>그게 최선이라 생각됐다.</p>  
<p>'안 맞고 잡으면 되는 일이니까.'</p>  
<p>병사들과 달리 자신은 볼칸의 공격을 피해 낼 자신이 있었다.</p>  
<p>그러려면 볼칸을 놈의 부하들과 떼 놓는 게 우선.</p>  
<p>진우는 마법병에게 선공을 지시했다.</p>  
<p>'원거리 공격으로 볼칸의 부하들을 먼저 불러들이고 뒤떨어져서 오는 볼칸을 일대일로 제압한다.'</p>  
<p>간단명료한 작전이었다.</p>  
<p>'지금.'</p>  
<p>진우가 수신호를 내리자, 마법병의 손끝에서 불덩이들이 날아갔다.</p>  
<p>슈우욱-</p>  
<p>슈우욱-</p>  
<p>퍼엉!</p>  
<p>불덩이가 볼칸의 졸개 근처에서 폭발하며 작전이 시작됐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하층의 지배자, 탐욕스런 볼칸이 침입자를 발견했습니다!]</p>  
<p>[볼칸의 호위병이 침입자를...]</p>  
<p>[볼칸의 호위병이 침입자를...]</p>  
<p>띠링, 띠링, 띠링!</p>  
<p>경고음이 무서운 속도로 이어졌다.</p>  
<p>그리고 경고음과 동시에 볼칸과 졸개들의 고개가 이쪽을 향했다.</p>  
<p>'좋아...'</p>  
<p>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.</p>  
<p>진우는 볼칸의 졸개들에게 들키지 않고 놈들의 뒤로 돌아가 볼칸을 치기 위해 은신으로 모습을 감췄다.</p>  
<p>스르르.</p>  
<p>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.</p>  
<p>분명 그렇게 생각했는데.</p>  
<p>두다다다다다다다-!</p>  
<p>'...!'</p>  
<p>볼칸이 예상을 깨고 가장 먼저 달려왔다.</p>  
<p>'뭐야? 영상을 몇 배속으로 돌린 것 같은 저 움직임은?'</p>  
<p>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!</p>  
<p>졸개들을 제치고 온 볼칸이 그림자 병사들 앞에 섰다.</p>  
<p>'낭패다!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덩치는 산만 한 녀석이 빠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볼칸이 몽둥이를 쳐들었다.</p>  
<p>하늘로 향한 몽둥이가 무방비로 노출된 마법병들을 덮치기 직전, 어디선가 튀어나온 아이언이 칠흑의 방패를 세웠다.</p>  
<p>부웅-</p>  
<p>콰직!</p>  
<p>가까스로 공격은 막았지만... 아이언의 두 팔이 박살나버렸다. 그림자 병사들 중 가장 단단한 녀석이 한 대를 못 버티고 전투 불능 상태가 됐다.</p>  
<p>후두둑</p>  
<p>부서진 아이언의 팔이 조각난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"으음? 으음?"</p>  
<p>방금 일격이 시원찮았는지 볼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몽둥이를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.</p>  
<p>그러나 그것도 잠시.</p>  
<p>놈이 다시 몽둥이를 내려찍었다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콰직!</p>  
<p>방어할 수단을 잃은 아이언과 그의 뒤에 있던 마법병들이 무력하게 파괴됐다.</p>  
<p>빠직.</p>  
<p>그 장면을 목격한 진우는 속에서 뭔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'이 새끼가...'</p>  
<p>진우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.</p>  
<p>이성의 명령이 아니었다.</p>  
<p>팟!</p>  
<p>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볼칸을 향해 뛰어오른 뒤였다.</p>  
<p>타깃은 정해졌다.</p>  
<p>산 같은 덩치와 다르게 몸에 붙어있는 혹처럼 조그만 머리.</p>  
<p>진우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허리를 뒤틀었다. 뒤로 당겨진 어깨와 팔의 근육이 부풀어 올랐다.</p>  
<p>꽉 움켜쥔 오른손에 온 신경을 집중하자 스르륵 은신이 풀렸다.</p>  
<p>"으음?"</p>  
<p>뒤늦게 볼칸이 진우를 발견했다.</p>  
<p>하지만 코앞에 두고서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진우는 주먹을 느리지 않았다.</p>  
<p>쉬익-!</p>  
<p>총탄처럼 쏘아진 주먹이 볼칸의 옆얼굴을 강타했다.</p>  
<p>투쾅!</p>  
<p>볼칸이 튕겨져 나갔다.</p>  
<p>한참 동안 바닥을 구르던 볼칸은 뼈대만 남은 건물의 잔해에 처박히고서야 간신히 움직임을 멈췄다.</p>  
<p>와르르!</p>  
<p>그나마 남아 있던 건물의 형체가 무너지며 볼칸에게 떨어졌다.</p>  
<p>탁.</p>  
<p>가볍게 착지에 성공한 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'뭐가 이렇게 가볍게 날아가?'</p>  
<p>스스로도 안 믿기는지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저 덩어리를 날려 버린 주먹에는 생채기 하나 찾을 수 없었다.</p>  
<p>그때 문뜩 떠오른 기억.</p>  
<p>'아, 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머리 위엔 금방 호출한 스탯창이 떠 있었다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50 체력: 109 민첩: 139 지능: 109 감각: 111</p>  
<p>'...그랬었지.'</p>  
<p>스킬은 암살자 타입으로 얻고, 직업은 마법 계열로 정해져서 깜박 잊고 지냈던 것이 있었다.</p>  
<p>[근력: 150]</p>  
<p>'...'</p>  
<p>모든 스탯 포인트를 지능 쪽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아직 근력이 지능보다 1.5배 가까이 앞선 상태였다.</p>  
<p>'정말 무식하게도 힘에만 투자했었구나.'</p>  
<p>거기다 지금은 레벨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상태.</p>  
<p>스탯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간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.</p>  
<p>그 결과가 저거.</p>  
<p>처박혀 있는 볼칸을 바라보던 진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실소를 흘렸다.</p>  
<p>"허..."</p>  
<p>일반 몬스터인 하급 악마, 중급 악마들을 학살할 때는 알기 힘들었다. 그런데 보스급을 마주하고 나자 확신할 수 있었다.</p>  
<p>'확실히... 강해졌다.'</p>  
<p>불끈.</p>  
<p>움켜쥔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.</p>  
<p>고양감이 몸속을 채워 갔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익숙한 기계음이 들렸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으음? 으음?"</p>  
<p>쓰러졌던 볼칸이 몽둥이를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.</p>  
<p>'넘어진 몬스터가 일어난다고 경고음이 울렸던 경우가 있었나?'</p>  
<p>시스템이 그리 친절했던가?</p>  
<p>고개를 갸웃거리는 진우의 눈앞에 기계음의 원인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하층의 지배자 탐욕스런 볼칸이 스킬: '분노'를 사용합니다.]</p>  
<p>'어?'</p>  
<p>띠링, 띠링, 띠링.</p>  
<p>연달아 경고음이 울렸다.</p>  
<p>[분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.]</p>  
<p>[볼칸의 능력치가 50% 증가합니다.]</p>  
<p>[볼칸이 느끼는 통증이 감소합니다.]</p>  
<p>'저 스킬...?'</p>  
<p>진우가 켈베로스에 대한 기억을 채 꺼내기도 전에 두 눈이 붉어진 볼칸이 쏜살같이 달려왔다.</p>  
<p>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!</p>  
<p>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지면이 흔들렸다.</p>  
<p>진우가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뒤에서는 볼칸의 부하들과 그림자 병사들의 전투가 한창이었다.</p>  
<p>"그워어어어!"</p>  
<p>"키에엑!"</p>  
<p>악마들과 병사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서 진우는 아이언을 찾아냈다. 어찌나 충격이 컸었는지 아이언은 아직도 재생이 진행되는 중이었다.</p>  
<p>"아이언!"</p>  
<p>진우가 소리쳤다.</p>  
<p>그러자 아이언이 자신의 방패를 힘껏 진우에게 던졌다.</p>  
<p>방패를 넘겨받은 진우.</p>  
<p>시선을 다시 앞으로 향했을 땐 이미 볼칸이 서 있었다.</p>  
<p>'내가 피하면 병사들이 휩쓸린다.'</p>  
<p>병사들 없이는 볼칸과 놈의 부하들을 모두 사냥하기가 어려웠다.</p>  
<p>그래서 진우는 최대한 병사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.</p>  
<p>방패를 치켜들고, 팔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곧 볼칸이 몽둥이를 내리쳤다.</p>  
<p>쾅!</p>  
<p>쾅!</p>  
<p>쾅!</p>  
<p>땅이 울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격이 숨 쉴 틈 없이 쏟아졌으나, 진우는 침착하게 버텨 냈다.</p>  
<p>높은 물리 방어력과 올라간 체력 스탯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.</p>  
<p>"음? 음?"</p>  
<p>공격이 먹히지 않자 흥분한 볼칸이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다.</p>  
<p>쾅! 쾅! 쾅! 쾅!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무릎이 굽혀지는 일은 없었다.</p>  
<p>'그래도...'</p>  
<p>이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는 저 덩어리를 잡지 못한다.</p>  
<p>진우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.</p>  
<p>켈베로스의 경우와 다른 것이, 볼칸의 분노 스킬은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 지속 시간에 한계가 없었다.</p>  
<p>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다.</p>  
<p>쾅! 쾅!</p>  
<p>진우는 이를 악물었다.</p>  
<p>'맞고만 있는 건 성미에 안 맞기도 하고...'</p>  
<p>쾅!</p>  
<p>마지막으로 부딪힌 몽둥이가 방패에서 떨어질 때.</p>  
<p>반격을 준비하던 진우가 볼칸의 머리를 향해 뛰어올랐다.</p>  
<p>하지만 기회를 노리던 건 진우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진우가 뛰어오르는 타이밍에 맞춰 볼칸이 상체를 뒤로 멀찍이 뺐다.</p>  
<p>'뭣?'</p>  
<p>그리고 옆에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 몽둥이.</p>  
<p>'...당했다.'</p>  
<p>손이나 발이 닿을 곳이 있다면 모를까.</p>  
<p>공중에서는 피할 길이 없었다.</p>  
<p>막아 낸다 해도 그 충격으로 인해 어디로 튕겨 나갈지 모른다.</p>  
<p>부웅-!</p>  
<p>느려진 시간 속에서 진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몽둥이를 보며 침음성을 흘렸다.</p>  
<p>'방법이, 방법이 없을까?'</p>  
<p>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해 볼 수 있을 텐데.</p>  
<p>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른 순간.</p>  
<p>'몸을 움직인다?'</p>  
<p>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.</p>  
<p>계산하고 있을 틈은 없었다. 생각과 동시에 진우는 '지배자의 손길'을 써서 볼칸을 밀었다.</p>  
<p>"으음?"</p>  
<p>물론 볼칸같이 육중한 녀석을 움직이기에 '지배자의 손길' 스킬의 힘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.</p>  
<p>하지만 그 반동으로 자신이 뒤로 밀려났다.</p>  
<p>부웅-!</p>  
<p>몽둥이의 끝이 아슬아슬하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'됐다!'</p>  
<p>나가떨어진 진우는 바닥을 몇 바퀴 구르기는 했으나 몽둥이에 맞았을 경우와 비하면 비교적 무사히 지면에 착지했다.</p>  
<p>"휴-!"</p>  
<p>균형을 잡는 데 성공한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으음?"</p>  
<p>반면 볼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다.</p>  
<p>회심의 일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양이었다.</p>  
<p>"으음, 으음!"</p>  
<p>붉어지는 볼칸의 얼굴을 보고 있던 진우가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이걸 어쩐다?'</p>  
<p>정면으로 뛰어오르니 어렵지 않게 피해 버린다.</p>  
<p>그렇다고 머리 말고 다른 곳을 공격하자니 온몸을 둘러싼 살 때문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.</p>  
<p>'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수밖에 없나?'</p>  
<p>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.</p>  
<p>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이윽고 뒤돌아선 진우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걸 도망치는 것으로 착각한 볼칸이 급하게 뒤쫓아 왔다.</p>  
<p>두다다닷-!</p>  
<p>볼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며 달리던 진우가 적당한 건물을 발견하고는 눈을 빛냈다.</p>  
<p>'저거다.'</p>  
<p>한편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볼칸은 진우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몽둥이를 뒤로 젖혔다.</p>  
<p>벌레 같은 생물!</p>  
<p>자꾸 귀찮게 구는 놈을 박살 낼 수 있는 찬스가 왔다.</p>  
<p>볼칸의 얼굴에 징그러운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그렇게 몽둥이를 내려치려는데.</p>  
<p>벌레 같은 것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무너지다만 건물의 외벽을 빠르게 밟고 올라갔다.</p>  
<p>"으음?"</p>  
<p>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지만 속도를 줄이기에는 이미 불가능했다.</p>  
<p>"으음, 으음?"</p>  
<p>순식간에 자신의 눈높이까지 건물을 타고 올라간 벌레가 벽을 강하게 박찼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거미줄처럼 금이 번져 나가는 벽에서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무언가가 쏘아졌다.</p>  
<p>그 벌레였다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볼칸의 눈동자가 커졌다.</p>  
<p>그 눈을 마주한 진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.</p>  
<p>진우는 오른손에 쥔 바루카의 단도로 목에 불뚝 튀어나와 있는 볼칸의 동맥을 베었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몸뚱이만큼이나 큰 핏줄에서 혈액이 분수처럼 솟구쳤다.</p>  
<p>쏴아악!</p>  
<p>"으음? 으음!"</p>  
<p>볼칸은 몽둥이를 버리고 급하게 손으로 상처를 틀어막았다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하지만 흘러나오는 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.</p>  
<p>순간 볼칸의 동공에 지진이 일었다.</p>  
<p>"으, 으음?"</p>  
<p>어느새 놈의 등을 타고 올라간 진우가 양손에 쥔 단검 두 개를 놈의 목에 깊이 박아 넣었다.</p>  
<p>'한 번으론 부족한가?'</p>  
<p>고개를 갸웃거린 진우가 단검을 뺐다가 다시 스킬을 썼다.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두 개의 단검이 또 한 번 볼칸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.</p>  
<p>푹!</p>  
<p>푹!</p>  
<p>그제야 기다리고 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하층의 지배자 탐욕스런 볼칸을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50,0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볼칸이 위장에 남아 있던 악마의 영혼들을 전부 토해 냅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72개를 획득했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